

리아호나

현명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0, 20쪽

상호부조회가 가장 잘하는 것, 26쪽

나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다, 36쪽

갈렙의 힘이 되어 주기, 친8쪽





우리가 가족 가정 비축에 관한 교회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될수록 “독립과 자립은 우리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 “자립의 신성한 특성,” 15쪽 참조, 또한 10, 20, 22쪽 참조.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가족을 지지하고 양육하고 보호함

특집 기사

8 인생의 경주를 완주함 아만다 디렌펠트
내가 아이스크림을 푸면서 인생을 완주하는 것에 대해 배운 것.

10 가족 가정 비축 : 새로운 메시지
음식을 비축하고 재정 준비금을 모으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

15 복음 고전: 자립의 신성한 특성
매리온 지 롬니 회장
독립과 자립은 영적인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22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아담 시 울슨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시야는 잃지 않았던 대기 자매.

26 주님의 구원 사업에 초점을 맞춤: 줄리 비 백 자매와의 인터뷰
상호부조회에서 우리 조직의 목적이 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집란

43 후기 성도의 소리
인생의 도전, 친구의 방문, 기적을 불러온 기도, 선교 사업.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의 주제들, 성공적인 가정의 밤.

표지
앞: 그림: 덴 버뒤; 사진: 존 루크,
엘든 시 앤더슨

청소년

특집 기사

20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1 기도와 개인 발전 기록부 예시카 애너벨 베나비데즈
개인 발전 기록부와 친구를 위한 기도.

32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베풀니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여러분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6 나의 첫 번째 전투 콜린 슬링스비
그날 밤 내가 내린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38 찾고 구조함 리차드 엠 롬니
화재, 지진, 태풍 또는 다른 재난에서, 이 청소년들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집란

42 포스터: 짧은 메시지





감자 수확, 비 와이 앤들린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입곱째 날에는 쉴지니”(출애굽기 34:21).

2009년 3월호, 제46권, 제3호
리아호나 04283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편집위원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의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케네스 존슨, 오사히코 기쿠찌,
더블류 더글라스 쉼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너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통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매튜 디 플리튼, 라넬 포터 고드,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러슨,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웰 투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맥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타이어,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킵 엠 무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15호, 제46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운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rch 2009 Vol. 33 No. 3.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참된 교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8 **특집 기사**
갈렙의 편에 서서 에이미 에스 테이트

4 **특집란**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취릴 에스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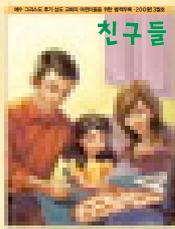
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친절로 일관된 삶**

10 **친구 사귀기: 기도로 힘을 냄**

13 **주 에수를 닮으려고:**
아빠를 위한 기도
레베카 시

14 **친구가 친구에게:**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용기
에릭 더블류 코우피슈케

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제니퍼 톨맨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덴마크어 정의반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애독자 편지

성전에 오십시오

2007년 10월호 리아호나에 가족 역사와 성전 참여라는 훌륭한 주제를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아호나가 회원들의 집에 배달되고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족 역사 센터에서의 활동이 세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달 리아호나의 그 기사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때로 회원들은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열의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준 리아호나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앤더슨 나시멘토, 브라질

작은 일에서

우리는 키스 비 맥멀린 감독님이 200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라는 권고를 따르기 위해 매주 동전 몇 푼이라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리카르도와 미레야 메르찬, 콜롬비아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¹ 현명한 이스라엘의 왕이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²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³

이 신성하고 영감 어린 권고는 오늘날 목마른 대지에 수정같이 맑은 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혼 범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넘쳐납니다. 정부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느라 늦게까지 일합니다.

사소한 불만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은 한 인사 담당자는 유난히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는 해 보셨습니까?”라는 익살스러운 문구를 메모에 적어 자신의 책상 위에 붙였습니다. 그는 이 메모를 붙이면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간단한

권고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고통을 어루만져 주며, 더 많은 범법을 예방하고, 인간 영혼에 더 많은 화평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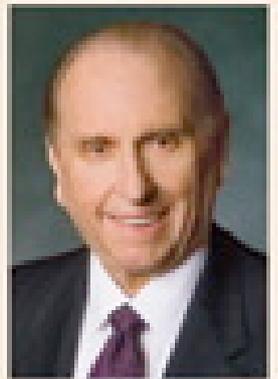
미국의 한 저명한 판사는 우리가 세계 각국의 시민으로서 범죄와 범법을 줄이고 우리의 삶과 국가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 기도의 옛 관행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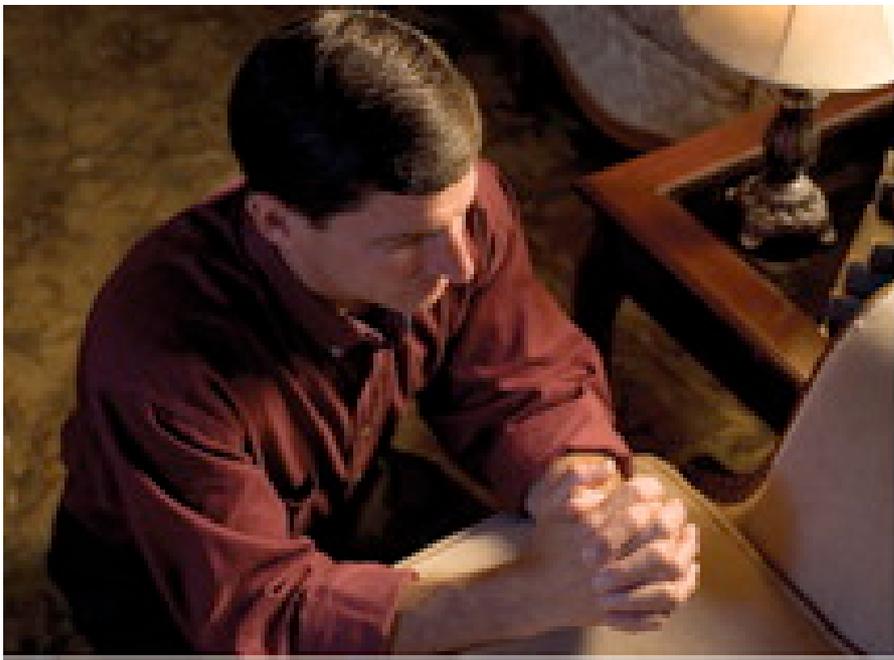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가족 기도가 그저 옛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 드리는 가족의 모습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흔히 회자되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말 뒤에는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⁴

주님께 기도 드리는 전형적인 후기 성도 가족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눈을 감습니다. 사랑과 단합과



함께 기도 드리는 가족의 모습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흔히 회자되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말 뒤에는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남자이거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은 제가 해외 왕국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보다 더 소중한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다음의 권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⁵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에 열심히 귀 기울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나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 떠다.”⁶ 기도는 신체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면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신앙을 부인하는 한 신앙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과 의심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쫓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임

우리 마음 속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이를 변치 않는 신앙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권유에 응해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⁷

이 약속은 어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기도로

기

도가 신체적 또는 지적 나약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의 아름다운 영이 그 가정을 채웁니다.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의 명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 아들의 기도를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의 기도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대인 딸이 동반자를 선택할 때 영감을 받고 성전 결혼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랑에 찬 어머니의 기도를 그 딸이 들을 때, 그런 딸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각각의 자녀들이 그 가족에 속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합당하게 생활하여 때가 되면 교회의 선교 지역에서 주님의 대표자로 봉사하기 위해 부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아들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지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콜로라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후기 성도 소녀가 쓴 편지에 대해 알고 있는데, 가족 기도가 그 편지의 동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를 선택하여 그에게 편지를 쓰라는 숙제를 받았습니. 많은 학생들이 유명한 운동선수들, 저명한 우주 비행사,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타 유명인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숙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간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해 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에 처음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야 렷의 형제가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 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⁸

이제, 우리가 단지 아직 기도하기를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저해 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선지자 조셉의 모범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렛의 형제가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⁹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¹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¹¹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¹²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¹³

조셉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¹⁴

회의론자들은 이 위대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일들이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시대가 정말로 변했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의롭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자비 속에 살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 그분께 빚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힘, 곧 영적인 힘을 줍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화평, 곧 영적 화평을 줍니다.

행동하는 신앙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 세계의 선교 지역에서 더 그러합니다. 제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 (1873~1979) 지시 아래 캐나다 선교부를 감리하고 있었을 때, 몬슨 자매와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젊은 남녀와 함께 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들의 삶 자체가 신앙과 기도의 증거였습니다.

하

나눔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구할 그분의 전능한
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입니다.

어느 날 새로 도착한 선교사 한 명이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강인하고, 행복했으며, 선교사가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봉사하려는 열의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온 마음을 다해 장로님의 선교사 부름을 지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 제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믿는 것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선교사 임무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아닌 어떤 근원에 의한 속삭임에 이끌려 주저 없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장로님의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 선교 사업을 마치기 전에 교회에 가입하실 것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저 게으르게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옛날에 주어진 다음과 같은 현자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청년은 그렇게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선교사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모임 전에 그를 찾아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버님의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은 변함없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선교부 회장님을 통해 제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몬슨 자매와 제가 귀환하여 선교 지역을 떠나기 2주 전에, 저는 이 선교사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몬슨 형제님,

“최근에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제 아들을 잘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늘 영감의 근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그는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눕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행동하는 신앙” 부분에 나오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는다. 신앙, 기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떻게 그 선교사가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토론한다. 가족에게 그들이 지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필요한 응답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권유한다. 또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행하도록 권유한다.

2.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임” 부분의 발췌문을 읽는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신앙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토론한다. “기도는 해 보셨습니까?”라고 쓴 메모를 그 가족에게 남긴다.

그가 귀환하기 전에 제가 교회 회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제게 알리지 않은 채로 아들에게 이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침례를 받았고, 현재 상호향상회의 운동 책임자이며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 아들은 지금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의 남동생도 최근에 침례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교 지역에 있는 형제님들이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친절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아버지로부터”

신앙에 찬 겸손한 기도가 다시 한 번 응답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야벳의 형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리고 기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알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 그리고 가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조금도 의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할 그분의 전능한 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입니다.¹⁵ ■

주

1. 잠언 3:5~6
2. 야곱서 3:1
3. 교리와 성약 6:36.
4. 계3니파이 18:21
5. 히브리서 11:6
6. 윌리엄 코퍼, *Olney Hymns, i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두 번째 개정판(1966), 161쪽.
7. 야고보서 1:5~6
8. 조셉 스미스-역사 1:13~14
9. 이터서 3:1~16 참조
10. 창세기 6:13~22 참조
11. 창세기 22:1~14 참조
12. 출애굽기 14:15~22 참조
13. 여호수아 6:2~20 참조
14. 조셉 스미스-역사 1:14~19 참조
15. 마태복음 11:28



인생의

아만다 디렌펠트

자라면서, 나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문에 나오는 “[나의] 최선을 다해, 완전하게”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라는 권고는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나는 내가 완전해 이르는 것, 또는 은혜의 역할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98년에 나는 건강 문제로 선교부에서 조기 귀환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완전하게” 끝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게다가 선교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짓게 만든 내 질병의 원인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때까지, 의사들은 내 병을 진단하지 못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학교에 등록했다. 그러나 겨우 두 학기 만에,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 고통 속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제서야 의사들은 내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수술 후 회복 기간 중에, 십대 시절에 일했던 초콜릿 가게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를 “완전하게” 완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학교 학위를 땀겨나 선교 사업을 마쳤거나 또는 가정을 이룬 내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스테파니를 만났다. 그녀는 어느 날 머리에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초콜릿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추천해 주면서, 그녀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아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스카프를 벗었는데,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때 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함께 특별하고 진솔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스테파니는 정기적으로 가게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며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과,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몇 가지 반항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그리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녀는 성전에서 남편과 인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번은 내 문제들을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서 나는 그녀에게

내 처지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지 털어 놓았다. “난 지금 내가 고등학생 때 찢던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찢고 있어. 난 선교 사업도, 대학도 마치지 못했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테파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너는 정해진 시간에 인생의 경주를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달리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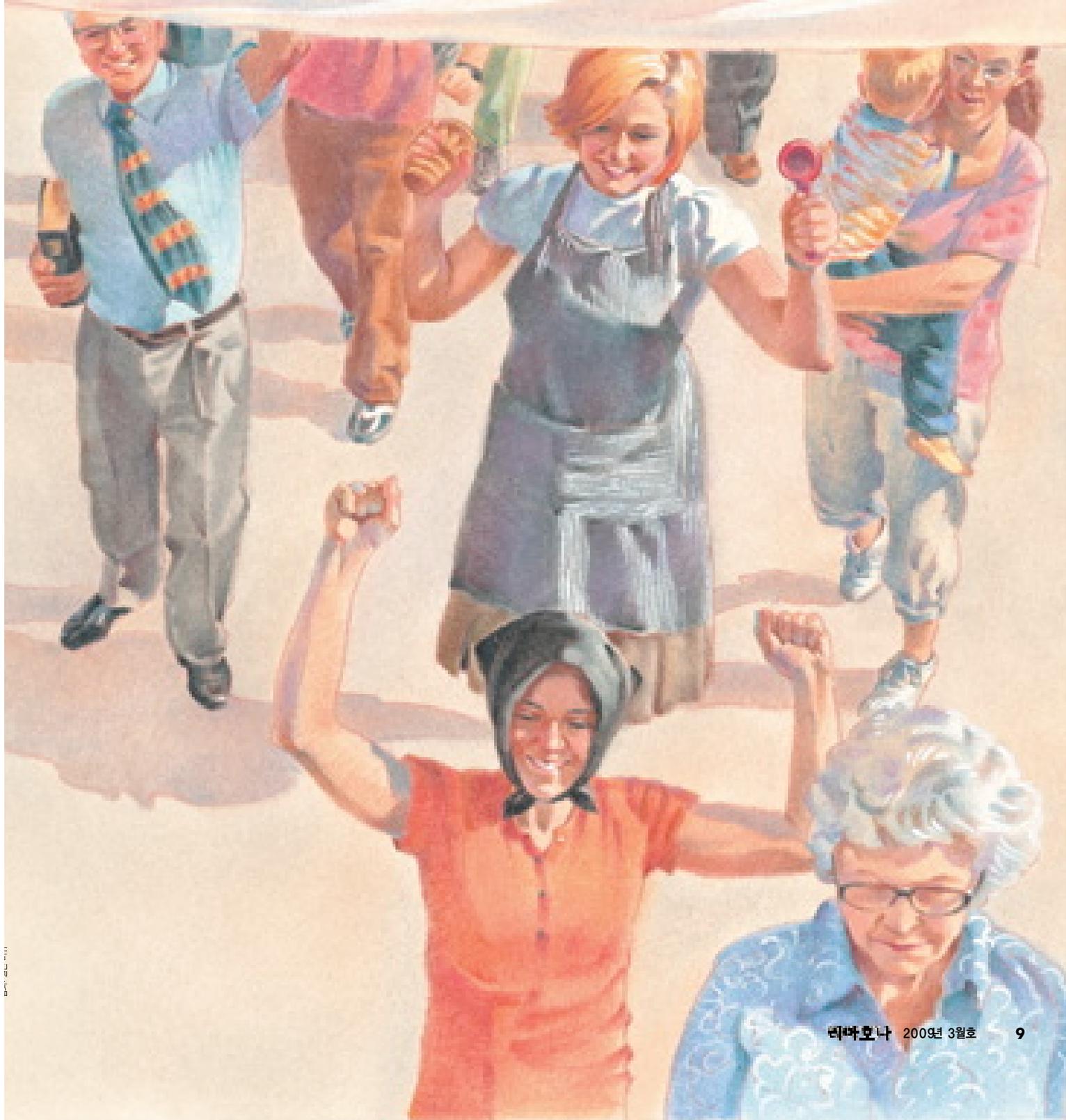
처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주는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속죄를 통한 그분의 은혜는 나와 내 부족함을 덮기에 충분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스테파니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그분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더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연약한 것들을 그분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반복해서 보아 왔다. 이 진리에 대해 내 간증은 강화되었고, 그 간증 덕분에 내게 닥친 어려움을 더 큰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맞설 수 있었다.

그 대화를 나눈 지 한두 달 후에, 나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 어느 날, 엄마가 내게 전화를 해서 스테파니의 부고를 신문에서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삼 주 전에 남편에게 인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스테파니를 알고 지냈다는 것과 그녀가 내게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관해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들었다. 항상 전력 질주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단지 결승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그 “최선”의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에 상관 없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모로나이서 10:32 참조) ■

경주를 완주함



가족 가정 비축: 새로운 메시지

가정 비축에 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유효 기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중 몇몇은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 자 자녀를 키우면서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에블린 제프리스는 가정 비축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식량 비축에 관한 활동들과 모임들에 참석하며 권고에 순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딸을 위해 필요하다는 수백 파운드 분량의 밀가루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와드에 있는 한 자매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을 때, 제프리스 자매는 성공적인 가정 비축을 위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비축 식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산을 세울 때 가정 비축을 위한 금액을 따로 책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식료품점에서 여분의 물품을 몇 개씩 더 구입했습니다. 또 매달 교회 가정 비축 센터에서 곡물이나 콩과 같은 기본 식품들 중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2002년 10월경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1910~2008)교회 회원들에게 가정 비축과 관련하여 좀더 단순한 방법을 따르도록 제안하셨을 때 제프리스 자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검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 분량으로, 그런 다음 석 달 분량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¹

제프리스 자매는 말합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이제 막 비축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가족들은 물론, 비축 공간이 없는 작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사는 이들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감 받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방법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자립에 접근하는 그들의 방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가정 비축과 재정적 대비의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소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가정 대비를 위한 새로운 지침들이 나와 있고, 그 지침들은 교회 회원들이 가정 비축을 할 수 있는 단순화된 네 단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양이 3개월치에 달할 때까지 통상적인 하루 식사에 해당하는 양을 모아 비축량을 점차 늘려나간다.
2. 식수를 비축한다.
3. 매주 약간의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적정한 금액이 될



때까지 점차 늘림으로써 재정 예비금을 모은다.

4. 일단 가족이 처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그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밀, 콩, 그리고 다른 주식들과 같은 장기적 기본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노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지침들에 관해,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리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달성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몇 가지의 단계를 소개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침 1: 3개월치의 비축을 차차 모으십시오.

소규모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비축에 추가할 수 있는 여분의 물품들을 몇 가지씩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분량을 비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분량으로, 그런 다음 석 달 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점차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감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피하면서 자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의 루고 가족은 소규모로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차 대회의 말씀을 들은 후에, 베네수엘라 팔콘 지방부의 교회 회원인 오마 루고 형제는 가정 비축을 시작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그의 가족과



의논했고, 그들은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음식, 물,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루고 가족은 그들이 상당한 양을 비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정 비축을 시작한 지 몇 개월 후에 베네수엘라 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많은 지역 근로자들의 직장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루고 형제도 끝내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의 가족은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7개월 후, 루고 가족은 오직 그들이 비축해 놓았던 식량에만

가정 비축에 관한 예언적 권고



“만약 식량을 비축하고 빚을 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몰아치는 경제적 폭풍우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를 거꾸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축한 식량은 없으면서 적어도 일년치의 빚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That Noble Gift Love at Home,” Church News, 2009년 5월 12일,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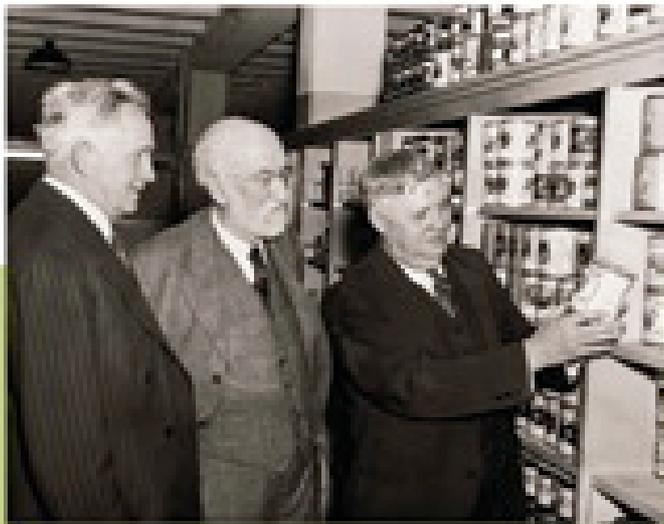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화재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여 그와 같은 재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가족 복지에 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및 Ensign 2002년 11월호, 58쪽.



의존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루고 형제가 직장을 다시 찾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실직의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계적으로 비축을 했습니다. 역경이 닦쳤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루고 가족처럼, 교회 회원들은 차차 가정 비축을 늘려나갈 때 제일회장단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돈을 저축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나치게 행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식품 비축을 한꺼번에 하려고 부채를 지는 것은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대신에, 제일회장단은 검소하고 지속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세심한 계획을 세워 시간을 갖고 가정 비축 물자와 재정 예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²



1936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시작되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오 맥케이(제2보좌), 허버 제이 그랜트(회장),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제1보좌).

지침 2: 식수를 비축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마실 수 있는 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를—혹은 적어도 평안 또는 불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의 회원인 가와이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20년 동안 식품과 물을 비축해 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남는 공간이 별로 없었지만 가와이 가족은 가정 비축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와이 자매는 그 결정으로 인해 큰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의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침 3: 약간의 돈을 저축하십시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지출(할)... 것을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 약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저축하여 재정 예비금을 점차적으로 모으십시오.”³



“스스로를 부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곡식과 밀가루를 모아두십시오. 기근의 시기를 대비해 비축하십시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 브리검 영 설교집에서 발췌, 존 에이 윌소(1954), 293쪽.

“풍요의 시기에 기근의 시기를 대비하십시오.”

제일회장단, “제일회장단 메시지”,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89쪽.



장기 비축 품목들의 저장 수명

연 구에 따르면 이 일반적인 장기 식량 비축 품목들은 올바르게 포장되고 실내 온도(24도) 이하에 보관될 경우,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영양분을 지니고 식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장기 비축 이후라도, 이 식품들은 비상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음식	추정 저장 수명(년 단위)
밀	30+
백미	30+
옥수수	30+
얼룩 콩	30
말린 사과 조각	30
마카로니	30
으깬 귀리(오트밀)	30
감자 플레이크	30
분유	20

200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인 키스 비 맥멀린 감독은 다음과 같이 교회 회원들에게 간곡히 권유하며 이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매주 동전 몇 푼이라도 저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박한 시작이 곧 몇 달 분량의 비축이 될 것입니다.”⁴

재정 예비금을 단계적으로 모아 나감으로써,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에 대비하고 그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침 4: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물품을 점차적으로 확립하십시오.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소책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 오랫동안 보존되고 또 생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밀, 백미, 콩과 같은 식품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간다.”⁵

장기적인 비축의 확립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오스카 파이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장기적인 식품 비축에 대해 몇 차례의 심층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올바르게 포장되고 습기 없이 건조하게 저장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 저장된 지 20년에서 30년, 혹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맛의 질과 영양의 가치가 이전에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길게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식량을 교체해야 하는 염려 없이 특정한 음식들을 장기적으로 비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들의 비축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1년치의 식량을 비축한다는 것은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불법이기도 했습니다.”라고 교회 복지 서비스의 관리 책임자인 테니스 리퍼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주일에 통조림 한두 개를 모으는 것일지라도 무엇이든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버튼 감독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지점에 도착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시작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주

- 고든 비 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야호나* 및 *Ensign* 2007년 11월호, 58쪽.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2007, 1쪽.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 2007, 1쪽.
- 키스 비 맥멀린, “곳간에 쌓아 두십시오”, *리야호나* 및 *Ensign* 2007년 5월호, 53쪽.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2쪽.

자립의 신성한 특성

매리온 지 롬니 회장(1897~1988)

매리온 지 롬니는 1951년 10월 11일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해롤드 비 리 회장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하였고, 후에 김볼 회장의 제1보좌로도 봉사하였다. 김볼 회장이 별세한 후 롬니 회장은 다시 십이사도직을 재개하여 1985년 11월 10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그는 1988년 5월 20일에 9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롬니 회장은 198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으며, 당시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 말씀에 대한 본 편집본은 1984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사람은 자립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립과 자립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성한 선지자들로부터 가르쳐진 단순한 복음 진리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결코 지쳐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그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권고받아 왔습니다. 자립이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원리를 이처럼 강조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앨버트 이 보웬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 어떤 체제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베품의 진정한 기능과 역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여 자유로워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¹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선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고안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을 자립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갈매기들

저는 얼마 전에 다음 기사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려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친근한 이웃 도시인 세인트
어거스틴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질 때를
기다리며 굶주리는 엄청난 바다 갈매기 떼가
있습니다. 고기잡이는 여전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갈매기들은 고기 잡는 법을
모릅니다. 몇 세대에 걸쳐 그들은 그물에서

떼어낸 먹이 조각들을 던져 주는 새우잡이 어선의 선원들에게
의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 어선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새우잡이 어선의 선원들은 갈매기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국가를 세웠었던 것입니다. 어른 갈매기들은 스스로를 위해 애써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새끼들에게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끼들을 그저
새우잡이 그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자체로 자유를 상징하는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새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짜’ 라는
미끼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들은 거저 주어지는 음식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이 갈매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새우잡이 어선’인 세금 그물에서 맛있는 조각들을 집어
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품이 바닥나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올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갈매기들이 되지 마시다. 우리는 자급 자족하는
재능,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지혜, 절약하는 의식, 그리고
자립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존해야 합니다.”²

우리 사회에는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이익을 갈망하고
받는 관습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방법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종종 후보들이 유권자를 위해
정부 자금으로 무엇을 해 줄지를 약속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만약 어떠한 사회라도 이 관습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이 관습은 그 사회의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정부가 돌봐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희생해야 하는 자기 존중심과 정치적, 현세적,
그리고 영적인 자립이 너무도 큼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이익과 노력 없이
얻는 이익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가족의 자산을 나눠
주며 자녀들을 “어리석은 갈매기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의 행동은 그 어떤 정부 프로그램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독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도 그들의 워드 회원들을
“어리석은 갈매기들”로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들의 감독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원은 지원입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의 활동은 우리의 자녀들과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정과 모인 회중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 정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맞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헨리 디 모일 회장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원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어진 역경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정직한 수고가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에 타는 듯한 자립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엄중한 신앙, 진정한 용기,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지닌 사람들이 인생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³

영적인 자립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립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완전히 자립했으나 그 밖의 다른 바람직한 특성들을 지니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부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립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목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영적인 것입니다. 1936년 프로그램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소견을 밝히셨습니다.

“영적인 본성의 발전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 즉 사람 안의 신성은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 든 교회와 가정의 활동은 우리의 자녀들과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야에서는 자립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취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든 창조물의 왕으로 만드는,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각입니다. 영성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혈벧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 실직에서 오는 절망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일하게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 복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생기는 가장 큰 축복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행위가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레스와 양복을 다시 만드는 것, 과일과 야채로 통조림을 만드는 것, 식료품을 저장하는 것, 정착하기 위한 비옥한 땅을 고르는 것 등

모든 것이 순전히 세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에 배어 있어 그 행위들에 영감을 주고 이를 성결케 하는 것은 영성의 요소입니다.”⁴

교리와 성약 29편 34절에서 35절은 현세적인 계명이란 것은 없으며, 모든 계명은 영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립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립과 자립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 또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존도가 증가하면,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즉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립이 행동하기 위한 온전한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옳은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립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자립하게 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립을 영적으로 만드는 열쇠는 자립을 통해 얻은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경전은 가진 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림

야곱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모든 이와 친숙하며,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그들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하라.

“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벧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리라.”(야곱서 2:17~19)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10개월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지니라.

“또 보라,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네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2:29~30)

같은 달에, 주님은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분명, 회원들은 조금 태만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44:6)

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을 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들어 올림으로써 우리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합니다. 봉사는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살 권리를 얻기 위해 그저 이 지상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청결함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에는 계명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이기적인 봉사에 참여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바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서 자립을 먼저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립 없이는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소망들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찬장에서는 굶주린 자들을 위한 음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지갑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에게서는 도움과 이해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가르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인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과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 올려지고 부유한 자들은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성결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속박과 빈곤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고,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의 최대 잠재



능력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이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남는 것을 나눔으로써 베품의 영원한 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면, 즉 자립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야에서는 자립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경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에서 강조되는 세 분야 중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최후의 심판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삶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

부제가 추가됨, 문체와 출처 인용은 표준화되었음.

주

1. 앨버트 이 보웬, *The Church Welfare Plan*(복음교리반 교재, 1946년), 77쪽.
2. "Fable of the Gullible Gull,(어리석은 갈매기들의 이야기)" *리더스 다이제스트*, 195(년 10월호), 32쪽.
3. 헨리 더 모일, *Conference Report*, 1948년 4월, 5쪽
4.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103쪽.



그릇

비유에 나오는 그릇은 여분의 기름을 담기 위한 용기였다.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분의 신앙, 간증, 그리고 영을 지니고 있고, 예기치 않은 일에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때때로 우리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다. 하지만 구주를 따르다는 것은 단지 그럭저럭 해 나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 신앙, 간증이 시험 받을 때를 대비하여 언제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로도디안(Herodian) 등은 보통 2시간 가량 쉴 수 있었다.

등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름 등은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 헤로도디안(Herodian) 등이라고 불렸다. 이 등으로 사람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빛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다닌다. (마태복음 5:14~16 참조)



등의 **손잡이**는 먼저 손으로 모양을 만들고 난 뒤 등에 붙였다.

등의 **몸통**은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도자기용 돌림판 위에서 그 모양이 형성된 것이다.

기름

우선 올리브를 씻기 위해 물에 담근다. 그리고 쓴맛을 제거한 뒤에 기름을 뽑기 위해 압착한다. 지중해 지방 도처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은 예로부터 많은 곳에 사용되었는데, 음식, 식용유, 양념, 상처 치료제, 화장품과 비누의 재료 및 등잔불의 연료로 사용되었다.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우리의 신앙과 간증, 우리의 청결함과 헌신, 우리의 선행,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것, 즉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 모든 방법들을 나타낸다. (요리와 성약 45:57)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영적인 준비라는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빈 제이 애쉬튼, "A time of Urgency", Ensign, 1974년 5월호,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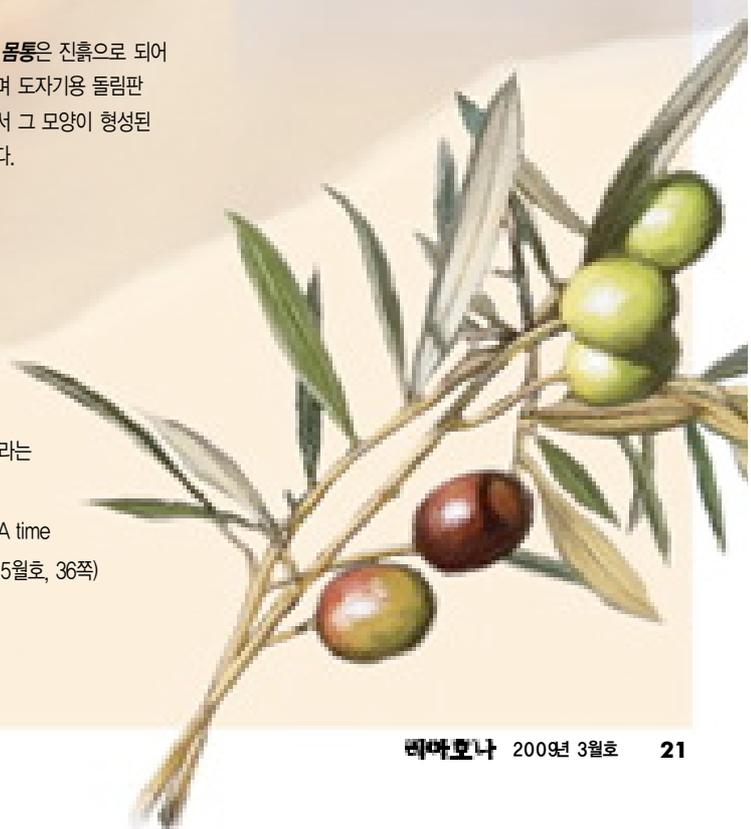
한 방울, 한 방울씩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씩 몇 년에 걸쳐 우리가 가진 등불에 기름을 더하는 것입니다. 금식, 가족 기도, 가정 복음

교육, 신체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경전을 연구하는 것 등의 모든 헌신과 순종의 행위는 기름 비축에 한 방울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친절함,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을 위한 성약 안에서의 결혼, 이러한 것들 역시 자정이 왔을 때 우리의 꺼져 가는 등을 다시 채워 줄 중요한 기름이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1895~1985), Faith Precedes the Miracle(1972), 256쪽.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대기 라미레즈 데 바카스는 시력을 잃은 지 15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보고 있다. “육신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70세의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대기 자매로 알려져 있는 그녀는,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 망막을 떼어내었을 때 시력을 잃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나갈까 걱정했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다니는 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림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합니다. 제가 요리할 때는 주위에 아무도 안 와요.”라고 말하며 그녀가 웃는다. “제가 좀 큰 칼들을 사용하거든요.”

대기 자매는 육체적 자립에 대해 걱정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자립의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진리의 지식에 대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의 빛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칠레, 비나 델 마르의 대기 자매는 육체적인 자립뿐 아니라 영적 자립도 함께 유지하는 좋은 모범이다.

복음의 빛

칠레 비나 델 마르 아추팔라스 스테이크 미라플로레스 와드의 회원인 대기 자매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인 1962년에는 갓 결혼한 상태였으며,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예사롭지 않은 흰 옷을 보았다. 다음날, 그녀는 청소를 도와주며 일하던 집에서, 꿈에서 본 것과 같은 흰 옷이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집 주인은 그녀에게 그 옷이 물론 교회의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대기 자매는 복음의 빛에 대한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기 위해 전 세계에서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 즉 선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진 길

대기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 그리고 시력을 잃기 전까지는 그녀의 경전을 충실히 읽었다.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한다.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저는 그분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적인 시력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제는 비록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공부해야 하지만, 대기 자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시편 119:105) 그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는 구주의 약속의 살아 있는 본보기이다.

그녀의 남편인 후안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한다. “아내는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라고 말하며 그는 짓궂게 웃는다.

“여러분이 구한다면,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대답한다. “제 영은 아직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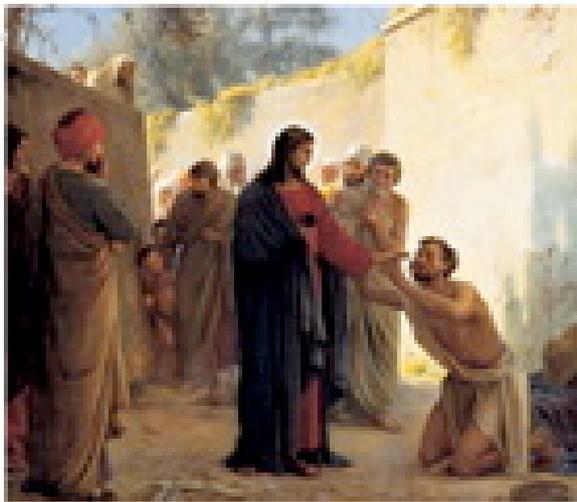
시력을 잃은 뒤로 육체적 및 영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기 자매의 경험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요한 복음의 맹인을 떠오르게 한다.

구주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복음 9:2~3)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기 자매의 삶에도 나타났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녀는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7)

어느 일요일 저녁, 가정 복음 교사들이 대기 자매 가족을 방문했다. 당시 대기 자매의 가족들은 실직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쌀 반 컵, 요리할 수 있는 약간의 기름, 그리고 작은 토마토 두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녀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갈 것을 권했다.

“제 딸이 제게 무엇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대기 자매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한다. 그녀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복음 9:2~3)

딸에게 식탁을 차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님, 당신께서는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다만 일곱 명분을 구합니다.”

“그 쌀 반 컵은 일곱 사람을 먹였습니다.”라고 그녀는 간증한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감사드리

대기 자매는 비록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그녀가 볼 수 있는 더 위대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사야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이사야 60:19)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먼 자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 어디에나 기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기 자매는 그녀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베드로전서 2:9)는 베드로의 훈계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훌륭한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갔고 인봉되었습니다. 제 삶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잘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계시

“만일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적인 계시의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 “Solving Emotional Problems in the Lord’s Own Way(정서적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함)”, Ensign 1978년 5월호, 92쪽.

가족을 지지하고, 양육하고, 보호함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을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왜 나는 가족에 대한 교리를 옹호해야 하는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Ensign* 1995년 11월호, 102쪽)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족을 지지하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성들은 창세 이전부터 받은 고유한 책임이 있으며, 성약을 지키는 후기 성도 여성으로서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11월호, 110쪽)

어떻게 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88:119: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 가정은 인생의 폭풍과 역경들에 맞서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의 기도, 경전 공부, 가정 복음 토론 및 그와 관련된 활동들, 가정의 밤, 가족 회의, 함께 일하고 노는 것,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 등을 통해 영성은 생겨나고 커 갑니다. 영성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 친절, 그리고 용서를 행할 때, 그리고 가족 안에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할 때 자라납니다. (“Therefore I Was Taught,” Tambuli, 1982년 2월호, 2쪽, *Ensign*, 1982년 1월호, 3쪽)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과 도처에 있는 헌신적인 부모, 조부모 및 모든 친척들을 포함한 대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 선언문을 고수하고 그것을 모로나이 장군의 “자유와 기치”와 같은 것들로 삼아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고자 결심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

“가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널리 행해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족은 직계, 방계를 포함한

대가족의 모든 친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공공 기관의 도움 및 원조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및 *Ensign*, 2007년 11월호, 41~43쪽)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없이 그저 걱정과 탄식과 불평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서 말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학교가 부적절하거나 도덕적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도시가 유해한 가스뿐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중독과 외설물에 오염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국가에, 그리고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On the Responsible Self”, *Ensign* 2002년 3월호, 30~31쪽) ■

주님의 구원 사업에 초점을 맞춤



교회 잡지와 인터뷰에서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상호부조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구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서 상호부조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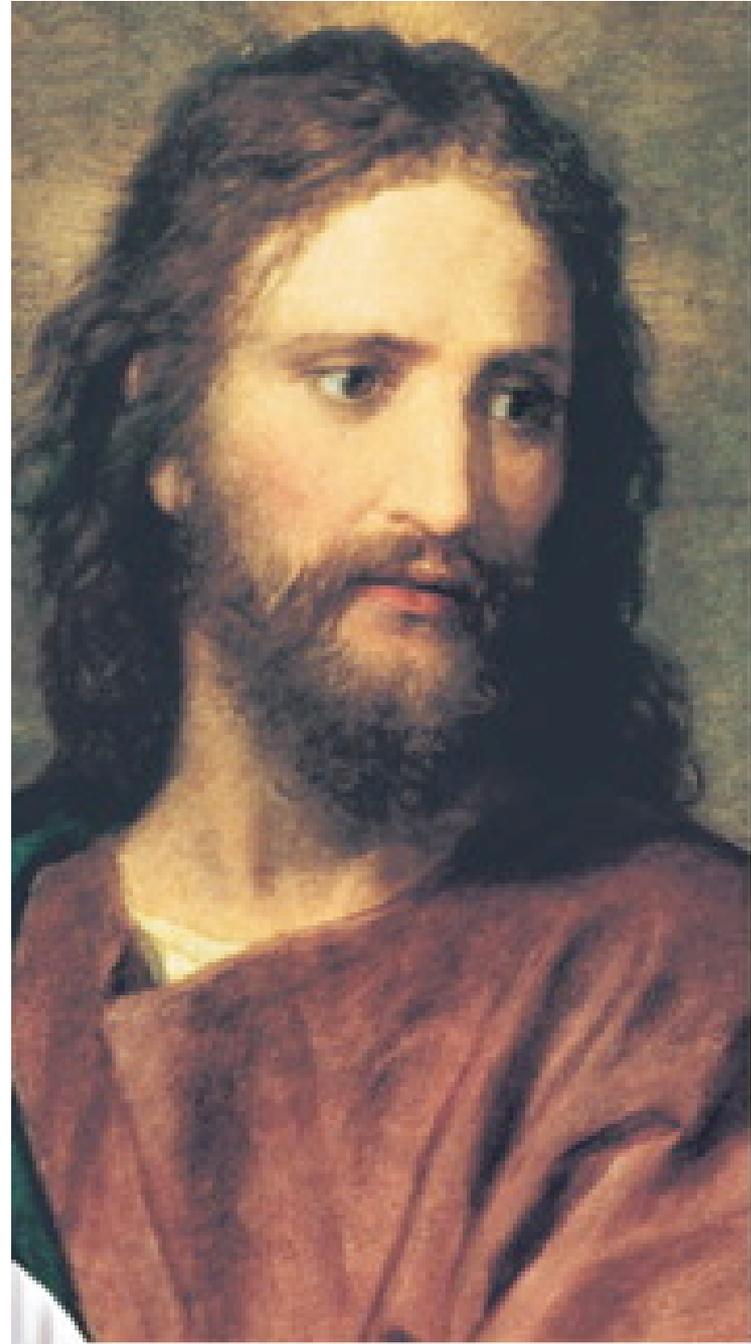
벡 자매: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단합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이자 본보기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권능은 실재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여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주님의 구원 사업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또한 경전 지식에 있어서 자립하게 되는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식, 성약 및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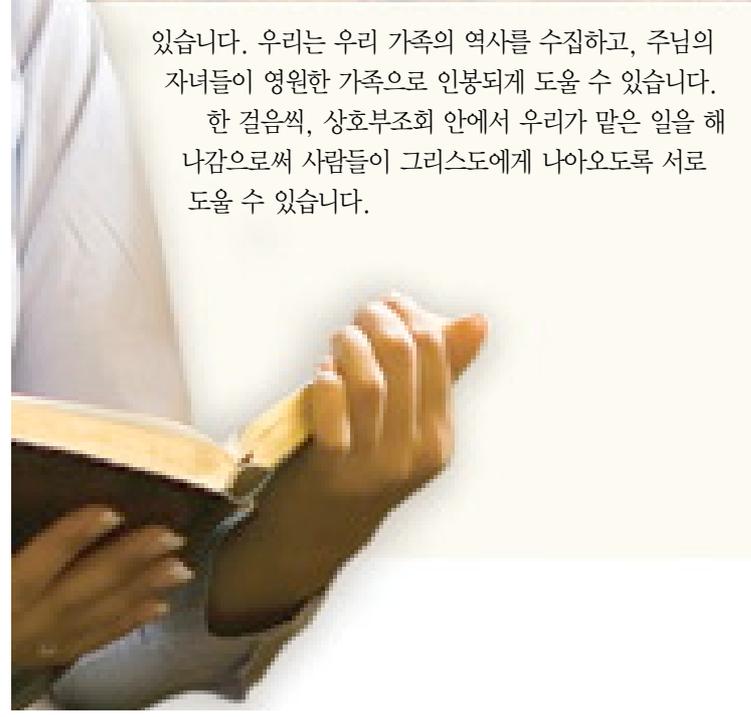
그 다음에 우리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돕고, 복음을 나누며, 침례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수집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상호부조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바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백 자매: 이 교회의 훌륭한 여성들은 이 일, 아니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과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매는 성신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의 사업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상호부조회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백 자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당시 브라질에 하나 밖에 없었던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회원이 4,000 명이 채 안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지도자가 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극소수의 지부에만 상호부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선교부 내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포르투갈어도 몰랐고 공과 교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것이라고는 복음과 상호부조회에 대한 간증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보좌들은 자매들이 방문 교사가 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상파울루에 있는 작은 지부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곱 명의 겸손한 여성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질인이었던 어머니의 보좌가 자매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 보좌였던 그 자매님은 일어나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었고 방문 교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포르투갈어로 다음의 네 문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가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모임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참석한 여성들과 포옹을 하고는 그들에게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위한 이 얼마나 겸손한 시작이었습니까! 결국, 브라질의 모든 지부에 상호부조회가 세워졌습니다. 자매들은 남미 최초의 스테이크와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의식과 성약,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보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현재 교회 회원 수가 백만

백 자매의 사진 촬영: Busseti Photography. 사진 설명: 존 루크,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용의 일부, 8인민회 오프만, 시 해리스 콜로이 시 제공

명을 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 자매들처럼, 우리도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일을 훌륭히 해냅니다.

상호부조회 활동의 초점을 주님의 구원 사업에 맞출 때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백 자매: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사업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단합되며 하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여성들이 강력한 방법으로 단합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을 버리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또 우리의 영이 고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좀 더 잘 대처하고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바쁘겠지만, 구원 사업을 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과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상호부조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백 자매: 상호부조회는 이 위험천만한 시기에 방어책을 제공해 줍니다. 일요일 공과, 상호부조회 활동과 모임들, 그리고 방문 교육은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방법이며 개개인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방편들입니다.

비록 이혼, 불순종, 부채, 불행, 무관심, 그리고 중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이 쏟아져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집합하고 있으며, 성전이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신권 성약과 의식이라는 보호책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만적이고 단호한 적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일요일 공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 자매: 일요일 모임의 목적은 복음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초등회와 청년회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여성들 또한 자신의 부름을 통해 복음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부조회 모임의 개최 부분을 간결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여



이어지는 복음 공부 시간에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연속적으로 출판되는 이 교재는 교회의 성인 남녀들에게 예언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며 그러한 예언적 가르침을 모아 놓은 지식의 보고로서 활용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분명하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수동적이 되거나 무관심해질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업적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편찬된 자료들 중 가장 훌륭한 출판물을 통해 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수년에 걸친 연구와 세심한 검토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경전과 교회 잡지는 또한 토론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 그 외의 다른 참고 자료, 특히 교회에서 발행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반원들에게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바로 교사이며, 우리는 그 영이 모든 일요일 공과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중에 갖는 상호부조회 모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 자매: 주중에 갖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단합과 자매애는 함께 일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기술과 자녀들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통해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청소, 정리정돈, 요리, 바느질, 정원 가꾸기와 같은 가사 기술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가정에서 양육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또한 교육, 직업적 소양 개발 및 첨단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현세적인 면에서의 자립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식료품을 비축해 놓아야 하며, 금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과 활동들을 계획할 때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교회 기금 등의 소중한 자원들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들에만 그 자원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청녀들이 상호부조회에 자연스럽게 속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백 자매: 많은 재능을 가진 우리 청녀들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때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녀들은 자신의 침례 성약을 지키라고 배워 왔으며, 이제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성전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막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된 18세의 자매들도 위원회를 이끌고, 기술을 가르치며, 선교 사업을 돕고, 방문 교사로 봉사할 수 있으며, 가족 역사 및 성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교육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 자매: 방문 교사들은 구주를 대신하여 도움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분의 손길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며, 우리의 봉사가 그분의 봉사입니다.² 훌륭한 방문 교사는 그들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방문 대상인 그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이 영으로써 복음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방문 교사들은 자매들의 가정과 삶을 강화하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강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 사업인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백 자매: 저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여성 장관과 국회의원 일행을 만났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여성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상호부조회라고 불리는 여성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 조직의 회장에게 교회 지침서를 보냅니다. 여성들은 자주 함께 모여 복음을 공부하고 그들 가족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웁니다.

회장은 상호부조회 여성들을 돌씩 짚지어 여성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가? 충분한 음식과 의복을 갖고 있는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방문한 후에 교사들은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을 예정이며,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조직 내에 그 필요한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자원을 조직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들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분은 제게 “그런 조직이라면 우리 나라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전 세계 어디서든 그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라는 것과, 우리 자매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

이 인터뷰는 교회 잡지 직원인 러렌 포터 곤트에 의해 진행되었다.

주

1. *History of the Church*, 5:25 참조.
2.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Ensign 2002년 11월호, 76쪽.



기도와 개인 발전 기록부

에시카 애너벨 베나비데즈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뒤
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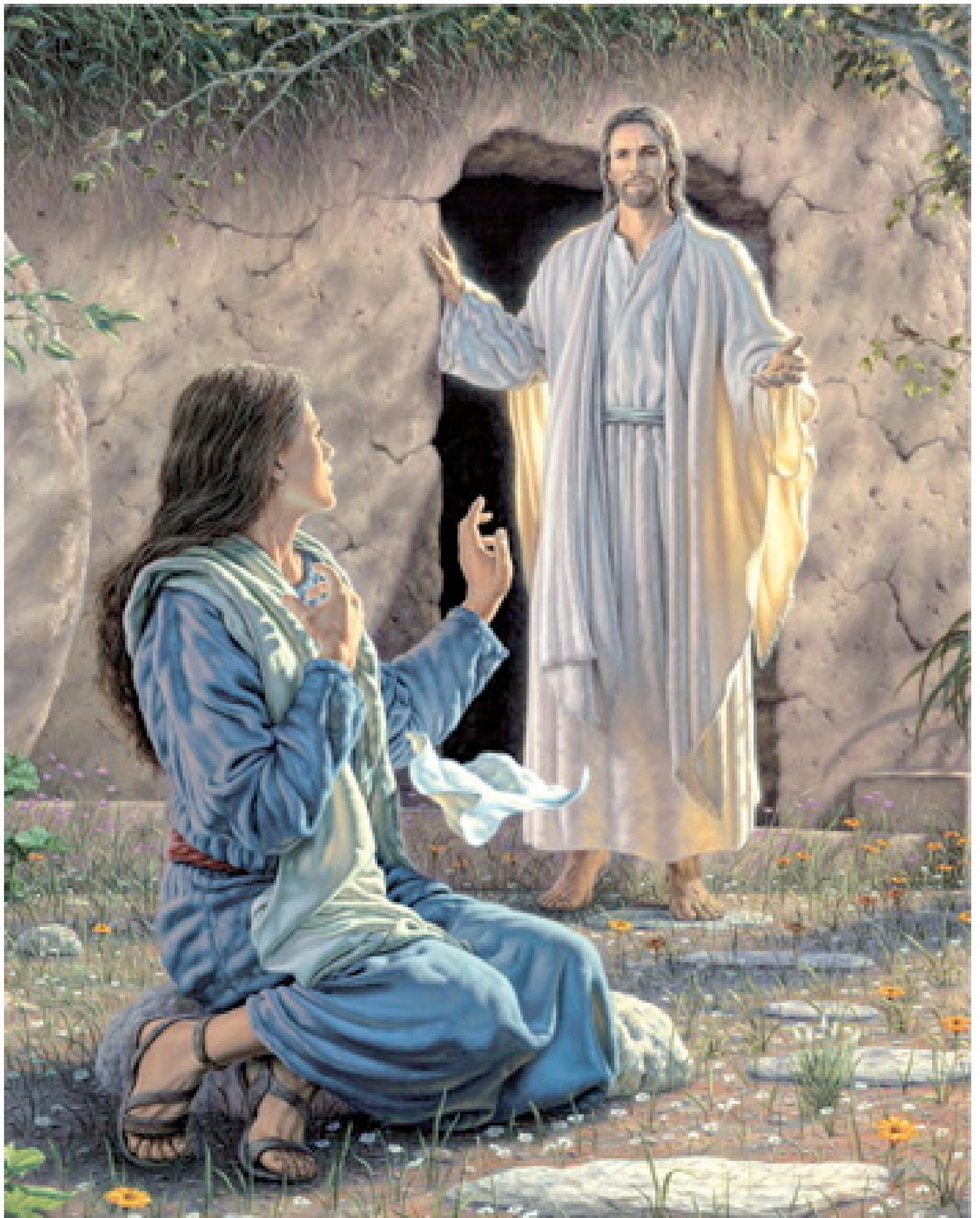
회원이 아닌 한 소녀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친구로 지낸 지
이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친구는 내가
항상 교회 활동에
참여하느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되자
교회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내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계속 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이 주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들 중 하나는 그 친구가 나를 존중해 주고
또한 교회가 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주 후 그 목표를 완수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나중에 발전 기록부를
살펴보는 동안, 기도와
관련하여 내가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일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친구에 관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는 그동안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제
예전처럼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교회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말 마음이 짱해졌다.
왜냐하면 이제 내 자신이 진지한
기도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친구의
마음을 바꿔 주셨음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영혼에게 강요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출석부에 올리지도, 또는 회원으로 간주하여 회원수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쏟는 시간과 자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간증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사명에 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명입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그분의 속죄의 무한한 영역; 셋째,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점; 넷째, 그분이 구원의 조건을 세우셨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습니다.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엘마서 40:23)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14:9)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영으로 살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멸의 영혼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린도전서 15:22, 25~26)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는 우리의 분명한 열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한복음 14:6)는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는 일부 현대 기독교인들은 진정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에베소서 4:5)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이 구주라고 믿는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짓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과 그의 구원이 예외 없이 모든 영혼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구원의 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정하신 그분의 권능 또한 받아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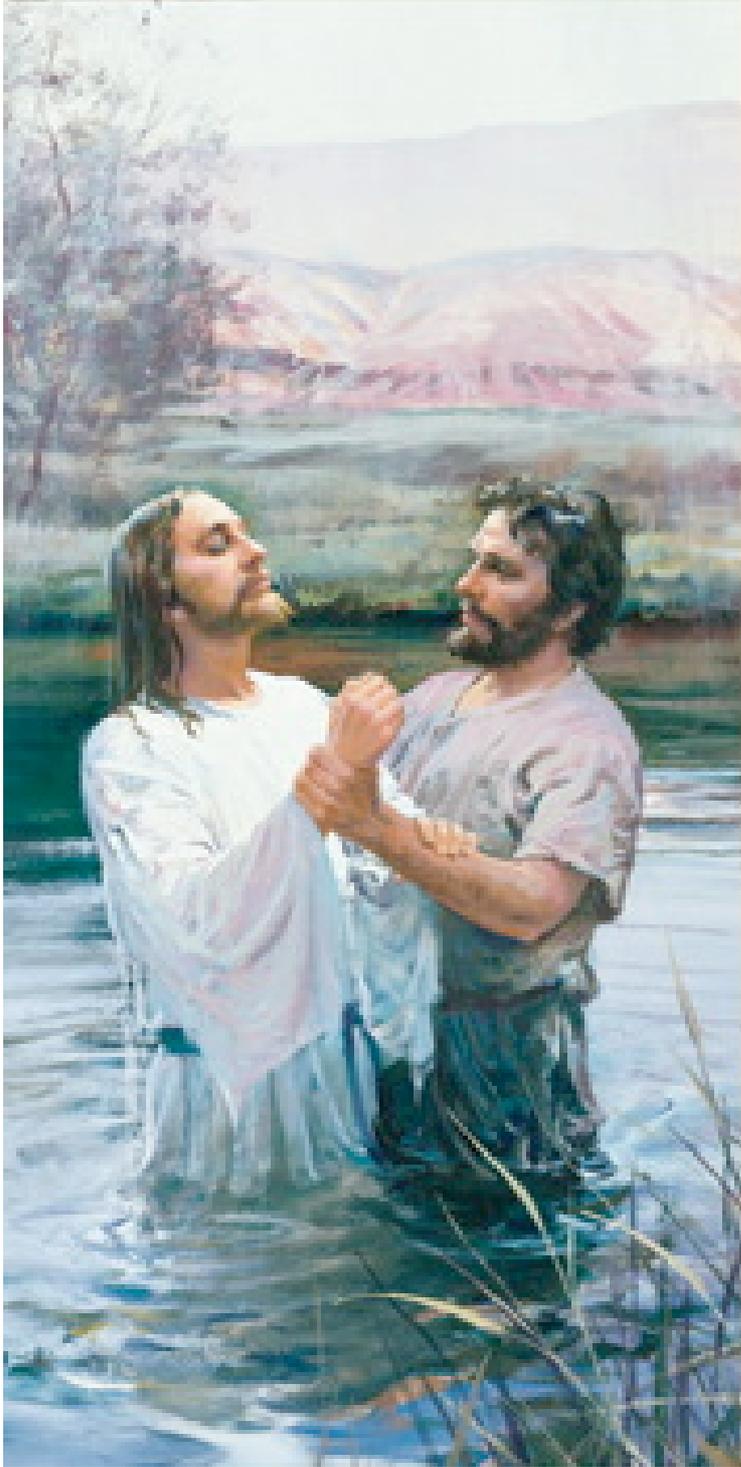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窄하다”(마태복음 7:14)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하]”(사도행전 2:38)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니파이후서 31:12)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후에 믿은 자뿐 아니라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든 자, 곧 그가 오시기 전에 있던 자”(교리와 성약 20:26)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대리 침례를 포함하여-신앙 가운데 견디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 전파되었[며]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는 것]”(베드로전서 4:6)입니다.

죽은 자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함

우리가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에서 행하는 대리 의식은 지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세대 간의 영원한 연결 고리를 가능케 합니다. 참으로 이 의식 없이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교리와 성약 2:3)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때때로 죽은 자들의 영이 어둠 또는 옥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이사야 24:22; 베드로전서 3:19; 앨마서 40:12~13; 교리와 성약 38:5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분의 자녀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깊이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지어다. 죽은 자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8:22)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책임도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향해 멀리, 그리고 깊게 확장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거룩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뚜렷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약속은 살아서 그분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이 그분 때문에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

200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야호나, 1998년 8월호, 16~17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최근 말씀 발췌록,” *Ensign*, 1998년 1월호, 73쪽.
2. 벤 펜튼, “Mormons Use Secret British War Files 'to Save Souls'”, *The Telegraph*(London), 1999년 2월 15일.

나의 첫 번째 전투

클린 슬링스비

군대에서 보낸 나의 첫 번째 토요일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내 앞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나는 열일곱 살 때 캐나다 육군 예비 부대에 입대했다. 훈련소로 보내진 나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내 인생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내 간증도 시험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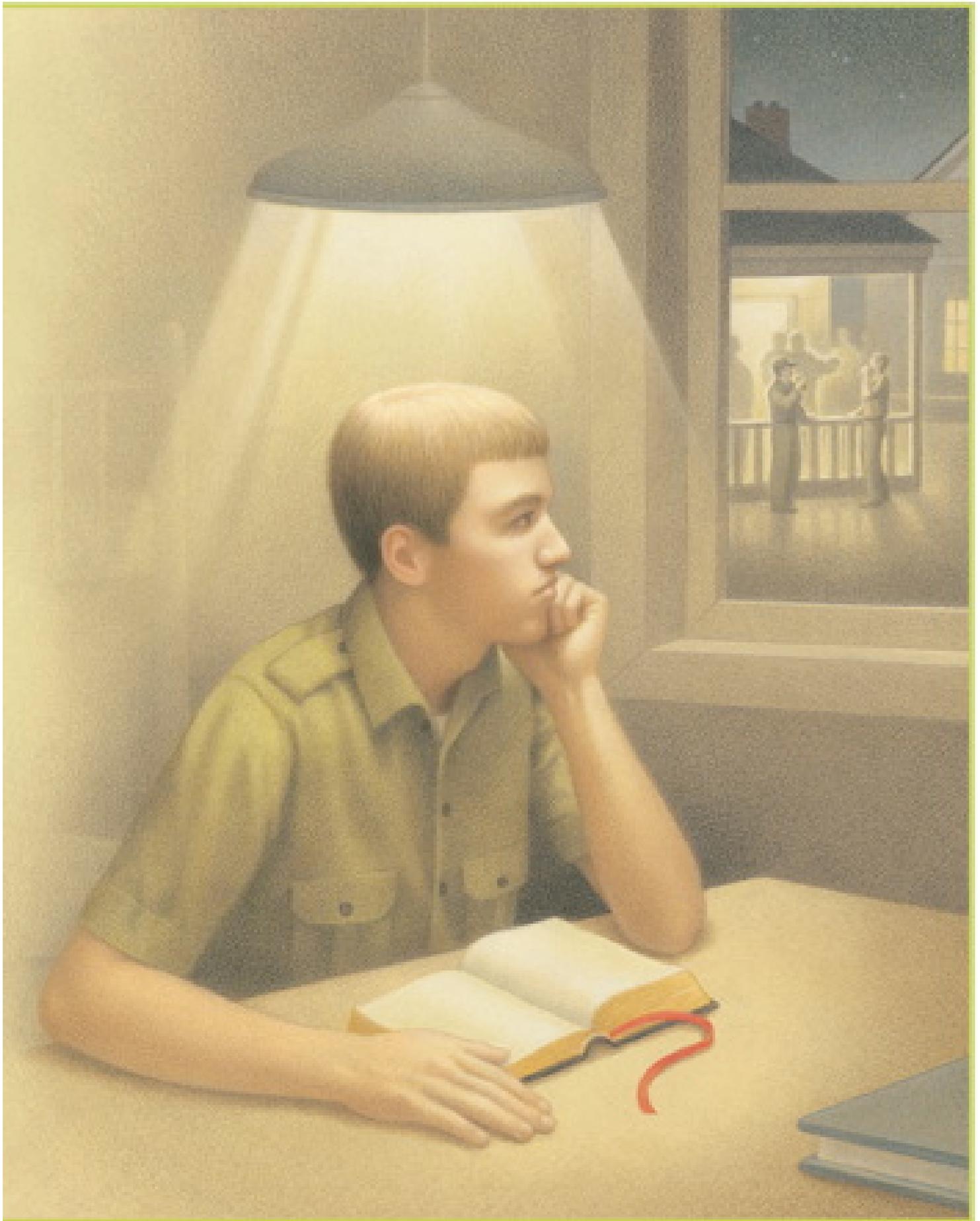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교관이었던 한 중사의 안내에 따라 여러 건물과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다. 갑자기 후기 성도 교회 지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아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중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다음 그는 훈련소에는 후기 성도 교회가 없지만, 내가 참석하고 싶다면 자기 부부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였고,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쁘게 데려갔다. 비록 바로 그 주 일요일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원한다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곳에 홀로 있고, 교회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내 자유였다. 비록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주 토요일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토요일 밤을 “생명나무”의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몇몇 친구들이 내게 훈련소 식당에서 같이 먹고 떠들며 놀자고 했다.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다음 날 교회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려면 곧 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찍 잔다는 내 말을 듣고 깔깔 웃어대며 나갔다.

친구들이 떠난 뒤, 나는 이층 침대의 내 자리에 풀썩 드러누웠다. 그곳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친구들이 식당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함께 놀지 않는다고 그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놀려댔는지 생각이 났다. 리하이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크고 넓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알 것만 같았다. (니파이전서 8:26~27 참조) 내 책상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경전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경전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경전이 나의 식탁대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리하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어디를 읽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느꼈던 영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갔을 때 그 영을 다시 느꼈다. 훈련소에서 지내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했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속적으로 쌓아갔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이후, 나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 ■



찾고 구조함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들 청남 청년들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집지

그들은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돕는다. 그들은 수영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길을 잃거나 다친 등산객이나 동굴 탐험가를 찾아 나선다. 휴일이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도에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들은 지역 사회 예방 집중 프로그램을 돕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진이나 허리케인, 또는 다른 재난 상황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들은 기본 및 전문 응급 처치기술, 수상 구조법, 동굴이나 구멍 같은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구조법, 재난 대응법 및 생존 기술 분야에 관해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훈련 교재와 실내 훈련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또한 야외의 산과 동굴로 장소를 옮겨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도 한다. 그런 다음 실제 비상사태에 투입된다.

2003년에 조직된 이래로 그들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왔으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거리에서 방황하는 많은 심대 청소년들을 이끌어 자신들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자기수양과



시진 훈련 중인 리차드 엠 롬니



훈련을 통해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춘 후기 성도들과(위)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왼쪽) 후기 성도 비상 위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다.

사랑에 관해 가르쳤다.

봉사 지향적인 성격

그들은 바로 후기 성도 비상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친절과 봉사에 관한 그들의 규칙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그룹이다. 10대 연령의 후기 성도가 핵심 인력이며, 헌신적인 성인들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창립 이래로 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그룹에 참여해 왔다.

후니오르 리베라는 말한다. “어느 토요일에 침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 위원회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 다른 방에서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검은 옷을 입고서 응급 처치법을 배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티셔츠와 모자에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죠. 제게는 그것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으로 보였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도우라는 교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넬 로드리게스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절차가 복음 원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비상시에 우리 가족을 먼저 보살피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가족이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지에 관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돌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프랭클린 데로스 산토스는 재난 대비와 관련한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보살핌만큼이나 영적인 탐색과 구조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프랭클린 데로스 산토스(위)와 같은 위원회 회원들은 적절한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여 훈련을 받는다. 탐색 및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상사태 대비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돕는 등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 그저 친절할 말 한 마디일 수도 있으며, 또는 간증을 나누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실천 지향적인 성격

오마르 로드리게스는 위원회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의 요건들을 달성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아론 신권 및 상호 향상회 활동에 맞추어 계획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라카레타 와드 감독단 제2보좌인 호세 누네스는 청소년들이 공과반과 정원회에서 복음을 배우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해 보고 있다고 말한다. “궁핍한 사람들을 길에서 직접 만나고 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를 배우게 되지요.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고, 또한 자기 수양에 관해 배우면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할 자신감을 심어 줍니다.”

누네스 형제는 또한 위원회가 교회의 통상적인 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교회 활동을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신권 정원회와 청년 공과에서 복음 원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위원회와 다른 봉사 프로젝트 등의 복음에 기반을 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는 말씀을 따르는 방법들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지역 사회 지향적인 성격

오마르는 위원회가 홍역 예방접종과 같은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고, 지역 사회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사실상, 교회 회원인 바실리오 카브레라와 도밍고 페랄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적십자 및 민방위 조직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공중 보건부는 후기 성도의 후원을 받는 이 그룹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으며, 시 당국과 광역 자치단체 또한 이 그룹에게 상을 수여했다.

누네스 형제는 위원회가 산토도밍고에 있는 주요 지역 및

인근 지역 사회를 깊이 연구한 뒤에 이를 토대로 비상 대응 계획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비상시에 우리는 이들 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 회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 당국에 보고합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지진,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에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한지 압니다. 우리는 강풍이 불어도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나뭇가지의 어떤 부분을 잘라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맡겨진 일의 일부입니다.”

위원회 회원들은 또한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에 자신들이 즐길 시간을 일부 포기하고 성인들의 감독 아래 24시간 경계 태세에 참여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기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라고 누네스 형제는 말한다. 이런 현실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가치를 위원회 회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준다.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준비되고, 기꺼이 행하며,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렇다면 위원회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모든 훈련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마르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활동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좋아하는데, 열대성 폭풍 노엘이 지나간 뒤에 이런 느낌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우리의 의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또 그런 후에 그들이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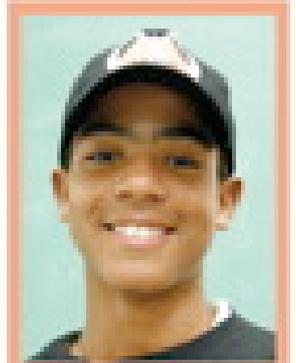
오시리스 로드리게스는 위원회 내에서 느껴지는 단합의 느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단합의 느낌이 그가 속한 정원회와 일반적인 교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느끼는 단합에서 확대된 것이라고 느낀다.

여러 달 전에 교회에 들어온 후니오르 바티스타는 그가 비상 위원회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몹시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여한 후로 그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기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관해 이와 같이 느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

주: 만일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 및 지역 정부 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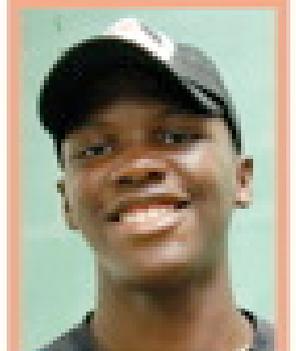
위원회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모든 훈련을 거치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가자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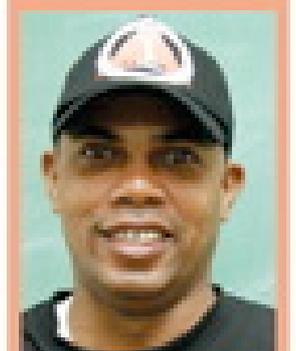
오시리스 로드리게스



후니오르 리베라



후니오르 바티스타



호세 누네스

짧은 메시지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하십니까?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니파이후서 3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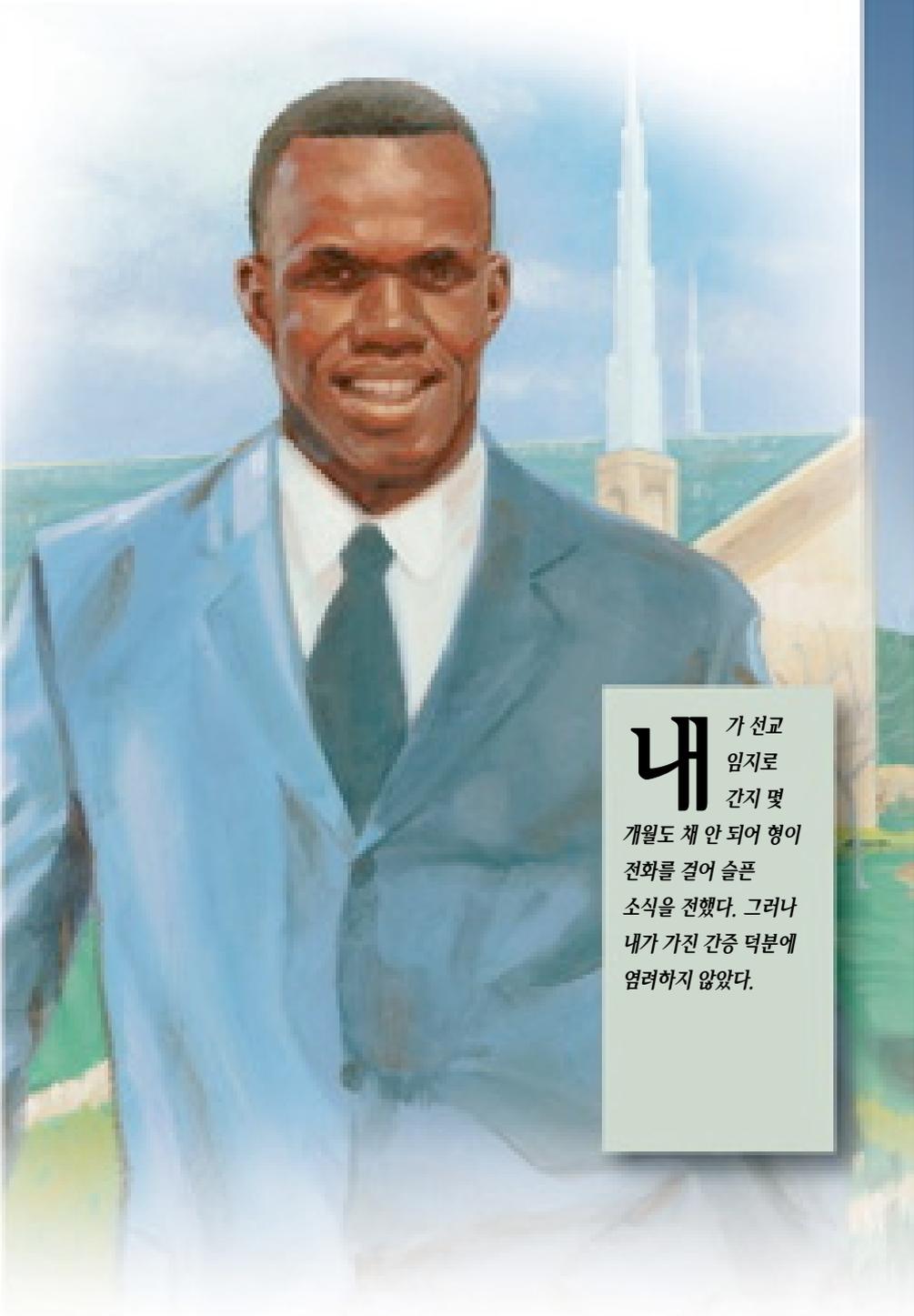
복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았습니다

브라이언 차티마

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빈두라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여섯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혼하셨으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는 홀로 우리, 즉 네 딸과 두 아들을 키우셔야 했다.

우리의 삶은 고달팠다. 나는 학교까지 4~5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했는데,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먹을 것도 하나 없이 등교하곤 했다. 수업료를 지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나는 학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제때에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으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양육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과 사랑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고,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곧잘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곤 했었다. 내가 열세 살이 되던 1998년, 두 명의 후기 성도 선교사가 이웃에 사는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왔다. 친구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했고, 선교사들은 그 다음 주에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는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내가 선교 임지로 간지 몇 개월도 채 안 되어 형이 전화를 걸어 슬픈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간증 덕분에 염려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2002년, 아버지와 누나 중 한 명이 꼭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나는 계속 열심히 생활했고,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2004년 7월에 전임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두반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선교 임지로 간 지 몇 개월도 채 안 되었을 때, 형이 선교부 회장님에게

신화: 마크 마켈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미 매장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잃은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4개월 후에 또 다른 누나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선교사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가르쳐 왔다. 나의 간증 덕분에 나는 결코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다. 나는 때가 되면 부모님과 누나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과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2006년 7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나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으로 가서 돌아가신 남자 가족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으며, 사망한 누나들을 위한 침례도 집행되도록 했다.

짐바브웨에서의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프로그램들을 따를 때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큰 간증을 갖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과 평안을 주는 성전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삶의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결코 주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해 의혹을 품지 않기를 바란다. ■

정확히 나에게 필요했던 것

새라 커틀러

빠빠한 일정으로 나는 일찌감치 문을 박차고 집을 나섰다. 바쁜 대학 생활에서 또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교과서, 무용단복, 무용화, 점심 및 저녁 도시락으로 가득 찬 내 가방은 터질 듯했다. 시험을 두 과목이나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읽기 과제도 끝마치지 못했으며, 그날 가야 할 곳을 다 같만한 시간도 충분치가 않았다.

무용 시험을 위해 치마를 입은 채 큰 가방을 멘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었고 첫 수업에도 제시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꼈다. 발을 헛디더 분주한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그것도 수많은 학생들과 차 앞에서 넘어졌을 때, 너무 당황하고 좌절감을 느낀데다 새 스타킹에 구멍까지 나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침 7시인데 나는 벌써 울고 있었다.

몸을 추스리고 절룩거리며 학교로 걸어가면서 주님께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게 해 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했다. 엄마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엄마는 멀리 다른 주에 계셨다. 아마도 주님은 내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내 수업에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와드에서 내가 무척

나 는 주님께
누군가를
내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북돋아주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했다.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보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첫 수업을 위해 서둘러 가면서도 누군가를 기대하며 두리번거렸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두 번째 수업으로 서둘러 갔지만 늦고 말았다. 세 번째 수업으로 달려가면서도, 그리고 그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 서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기분은 엉망이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시험을 더 잘 보았고, 공부를 하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조용한 복도를 찾았을 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몸을 굽혀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 방문 교사였는데, 그동안 학교에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날 내가 느낀 좌절감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잘되어가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계획들, 그리고 그녀가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는 그날 아침에 내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주님은 나를 돌보도록 부름 받은 자매를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나는 이른 아침 내 기분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야 내가 필요한 위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나 스스로도 또다른 걱정거리를 갖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위안의 말을 건넬 수 있게 준비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은 나를 아셨고 정확히 내가 필요했던 시기에 정확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셨다. ■



가축 사육장에서의 기도

코니 크룩스톤 포스그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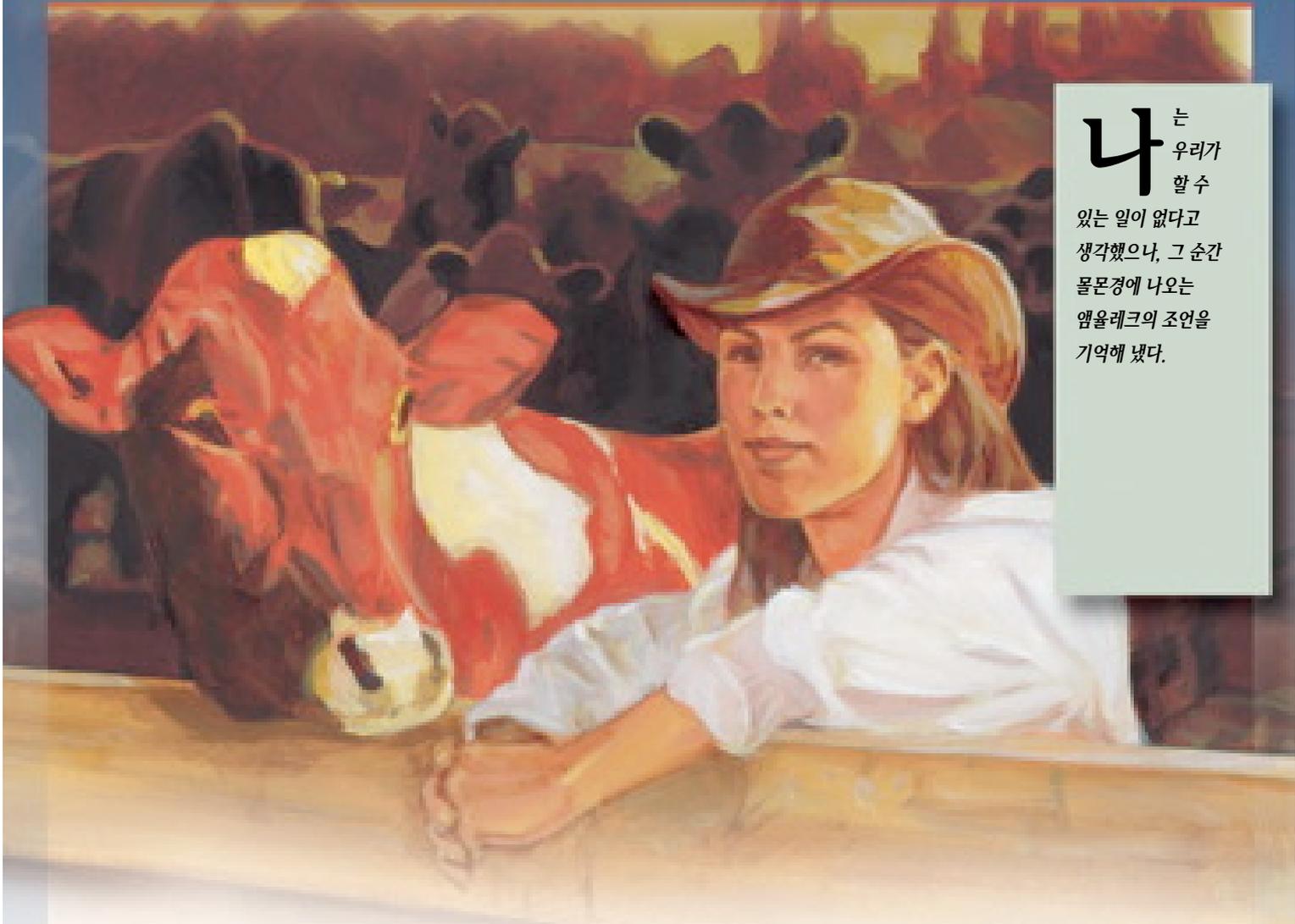
가 목 때문에 남편 존과 나는 우리 소들을 손해 보고 팔거나 아니면 미국 아이다호 주 남부의 멜바벨리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야만 했다. 다행히도 존은 약 480킬로미터 떨어진 프레스톤 지역에 있는 한 사촌의 가족 농장에서 여름 동안 사육할 수 있는 목장을 찾았다.

우리는 한 트럭 운전사와 소 40마리 모두를 한번에 운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는 아직 32킬로미터나 더 가야하는 지점에서 목장으로 난

울퉁불퉁한 길을 못마땅해 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근처의 임시 가축 사육장 근방에 소들을 내려놓았다. 날은 저물어가고 우리는 소 40마리를 운반해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존은 그 지역의 한 농부를 불러 세워 우리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얼마 후 스티브 믹스 감독님과 그분의 젊은 아들이 도움을 주려고 우리를 따라 사육장으로 왔다.

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소들은 임시 사육장에서 울타리가 부서진 부분을 보고는 자유를 찾아 그곳을 향해 내달렸다. 모든 소들이 그 울타리를 뛰어 넘어 또 다른 담장 속으로 들어갔다. 한 마리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암소는 울타리를 거의 뛰어 넘었으나, 뒷다리 하나가 울타리의 두 판자 사이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 순간
몰몬경에 나오는
엠올레크의 조언을
기억해 냈다.

미끄러졌다. 결국 그 암소는 앞발 하나가 가까스로 지면에 닿은 채 울타리 위에 위태로이 매달리고 말았다. 암소는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다른 뒷다리를 힘차게 차올렸다.

그 소를 빼내려면 기증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소의 다리가 부러진다면 우리는 그 소를 도살시켜야 할 것이었다. 소 한 마리를 잃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였다.

그 소는 무게가 450킬로그램 이상 나갔으며, 우리는 그 소 걸로 갈 수가 없었고 가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울타리 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나머지 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 순간 몰몬경에 나오는 엠올레크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기억해

냈다. “너희가 너희의 들에 있을 때, 참으로 너희의 모든 양 떼를 위해 그에게 부르짖으라.”(앨마서 34:20)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끝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소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다.

그 가축 우리로 돌아오면서도 내 입술에는 여전히 그 기도가 맴돌았다. 이때쯤 그 울타리 위의 소와 다른 소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갑자기, 떼지어 마구 돌아다니던 소들 중 가장 큰 암소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그 암소를 되돌려 보내려고 애썼지만 그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달려있는 소를 향해 나아왔다. 그 녀석은 머리를 낮추며 무릎까지 몸을 내리더니 꼼짝달랴 못하고 있는 소

아래로 몸을 밀어 넣고서 천천히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녀석은 뒷다리가 낀 소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무사히 땅에 내려놓았다. 드디어 소가 풀려났다! 기증기도 그렇게 잘 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두 소가 우리 쪽으로 달려가자 믹스 감독님은 자신이 방금 목격할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바라보셨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속삭였다.

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들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의 한 사육장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

쿠오피오에 장작을 쌓음

브라이언트 켄슨

19 68년 늦은 여름, 선교
동반자였던 켄 히튼 장로와
나는 핀란드 쿠오피오에 있는
한 일부만 회원인 가족을 방문했다.
어머니와 딸은 교회의 회원이었지만
아버지는 회원이 아니었다.

부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옆방에 있는 남편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큰
소리로 토론을
가르쳤다. 그를
우리에게 합류시키려
노력하자, 그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번은 뒤뜰에
겨울을 나기 위해 장작으로 꽤 쌓아 두어야
할 목재더미가 있다고 말하며 사양했다.

“장작을 모두 완성하고 쌓아 두면,
저희들이 형제님을 가르치게 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목재더미가 아주 많다고 덧붙이며, 그가
그 일을 다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 그 남편 분이 출근하기를
기다린 후, 동반자와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부인의 승낙을 얻어,
우리는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쌓았다.
우리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인

오후 다섯 시에 일을 끝냈다. 우리는
그의 표정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그는 우리와 마주치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씻은 후, 우리는 오후 일곱 시경에 다시
그 집으로 페달을 밟았다.

우리가 외쳤다. “좋아요, 장작이 다
됐군요! 이제 저희들이 형제님을
가르치게 해 주실건가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에 있는 우리와 합류했다.
몇 주 뒤, 선교사 토론을 들은 후에, 이
훌륭한 형제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



“장작이 다
됐군요!”
우리가
외쳤다. “이제 저희들이
형제님을 가르치게 해
주실건가요?”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립의 신성한 특성,” 15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의 어리석은 갈매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갈매기들은 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가? 자립을 정의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을 읽는다. 가족의 힘을 동원해서 이웃을 도울 목표를 세운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22쪽: 각기 다른 가족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알아맞춰야 할 작은 물건을 준다. 그들이 어떻게 물건을 알아맞췄는지 토론한다. 대기 자매에 관해 읽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토론한다.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베풀니까?**” 32쪽: 공과를 시작하면서 기사의 첫 문장을 읽는다. 가족들과 함께 기사에 나온 경전 구절들을 읽는다. 각 구절의 의미와 그 구절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토론한다. 기사를 통해 배운 원리들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역할극을 해 보며 마무리한다.

“**찾고 구조함,**” 38쪽: 기사의 내용을 가족들과 나눈다. 가족 내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비상 위원회를 구축한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을 준다.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한다. 비상 계획을 정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연습할 목표를 세운다.

“**칼렙의 편에 서서,**” 48쪽: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가족 구성원의 좋은 점에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성전, 32, 친4쪽
가족, 25, 친4쪽	성전 사업, 32쪽
겸손, 8쪽	시련, 8, 43쪽
구원의 계획, 32쪽	신앙, 2, 22쪽
개인 발전, 31쪽	영적 자립, 15, 22쪽
개종, 43쪽	용기, 36, 친8, 친14쪽
기도, 2, 31, 42, 44, 45, 친10, 친13쪽	은혜, 8쪽
기적, 22쪽	자립, 10, 15쪽
모범, 친8, 친10쪽	재림, 20쪽
방문 교육, 25, 26쪽	재정, 10쪽
봉사, 15, 38, 47, 친6쪽	조셉, 스미스, 친6쪽
부활, 32쪽	준비성, 10, 20, 38쪽
비유, 20쪽	죽은 자를 위한 침례, 32쪽
비축, 10쪽	지도자를 지지함, 친2쪽
성호부조회, 26쪽	친절, 친6, 친8쪽
선교 사업, 43, 47쪽	표준, 36쪽
선지자, 친2쪽	희망, 43쪽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칼렙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루크의 행동과 그의 용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이나 그들이 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 경험에 대해 나누어 달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가정의 오후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자매가 내게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해 왔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도 미망인이었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함께 월요일에 모여 가정의 밤을 가지면 어떨까? 또한 우리는 홀로 사는 다른 자매들도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약간의 조사를 했고, 우리 와드에서 이 모임에 초대할만한 여덟

명의 여성을 찾아냈다. 여섯 명은 미망인이었고, 한 명은 독신이었으며, 한 명은 남편이 교회 회원이 아닌 자매였다. 감독님의 승인을 받아, 나는 우리 모두 함께 가정의 “오후”를 갖기로 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낮에 가졌는데, 우리 중 대다수가 시력이 안 좋아서 해가 진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돌아가며 다른 사람의 집에 모여 짧은 공과를 나누었다. 아마도 이 모임을 통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매애로 엮어 주는 진정한 우정의 느낌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오후”를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는 함께 복음 공부를 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의 신앙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켜 주는 멋진 우정을 만끽하고 있다. 얼마 데 마케나, 칠레

여러분의 즐거운 가정의 밤

여러분이 경험한 즐거운 가정의 밤 사연이 있다면 liahona@ldschurch.org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데이비드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몰몬 도움의 손길 자원 봉사자들이 2008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 잔해를 치우는 일을 돕고 있다.

몰몬 도움의 손길, 봉사의 첫 10년을 마무리해

교회 회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에 왔지만, 지난 10여 년에 걸친 봉사는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노란색이다.

자연 재해 후에 긴급 원조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역의 공원을 청소하기까지,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은 밝은 노란색 조끼 또는 티셔츠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왔다.

몰몬 도움의 손길은 신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합하여 전 세계에 걸친 구호 활동에 기여하고 기타 봉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원

1998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된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은 남미의 교회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칠레에서 시작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매년 하루를

정해 준비된 봉사 프로젝트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이 첫 번째 공식적인 활동에서, 모든 연령대에 걸친 수만 명의 남미 교회 회원들이 협력하여 다국적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강화하고 미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와 병원에 수리 및 페인트칠을 하고 공원과 거리 및 공공 장소를 청소했다.

그 첫 번째 봉사 활동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정신은 브라질로 확산되었으며, 그곳에서도 봉사가 이어지고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2년 무렵, 이 조직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으로 인해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 봉사 조직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수십만의 자원 봉사자들이 수백만 시간을 바쳐 봉사하고 있다. 몇몇 남미 국가에서 다국적 봉사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조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범세계적인 구호 활동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미, 북미 및

태평양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호 활동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가 미국 남부를 강타한 뒤 청소를 도울 봉사자들이 조직되었다. 마당에 쌓인 잔해들을 치우고 폭풍우로 황폐해진 지역에 위생 용품 세트와 청소 도구 및 식품품 상자를 나누어주기 위해 텍사스 주 남동부의 회원들이 함께 모였다. 식량, 물, 연장 및 그 밖의 필요한 물자들이 갖추어진 지역 내 감독의 창고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자를 제공했다.

2008년,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홍수가 약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을 때,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물론 도움의 손길의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모래 자루 쌓기 및 기타 구호 활동을 도왔다. 아이오와 시터래피즈 스테이크는 일륜차, 삼, 그리고 교회가 보낸 작업복들로 채워진 구호 창고를 세웠다. 홍수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의 하나였던 이 스테이크도 고압 물청소 기계와 발전기를 구입할 기금을 전달받았다. 지역 사회는 고마운 마음으로 구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지역 사회 향상

재난이 있을 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하지만, 회원들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함으로써 교회 회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지역 사회가 자신들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회원들

홍콩의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위생 용품 세트를 만들고 있다.

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다.

2007년 11월, 아프리카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지역 사회를 청소하는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활동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있는 적십자 전쟁 기념 어린이 병원 청소와 조경 공사, 남아프리카의 올리브하우트보쉬에 50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 케냐 키탈레의 길을 따라 유리와 잡석 치우기 및 놀이터 놀이 기구 보수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적십자 전쟁 기념 어린이 병원의 최고 경영자인 니키 비숍은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일이 어린이, 부모, 직원 및 방문자들에게 줄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병원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매우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흡족하고 기쁩니다.”

회원 강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실천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봉사의 원리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모사이아서 2:17)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는 회원들의 시간과 재능을 규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많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봉사를 행하는 자들 자신에게도 축복이 된다. 회원들은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더욱 민감해진다. 구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간증은 강화되고, 함께 봉사함으로써 서로 더욱 단합하게 된다.

2007년, 당시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마이크 마틴 형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친 도움의 손길 봉사 활동의 날을 보낸 후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봉사는 우리를 내면적으로 도와주며 단합심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보다 더 결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 사회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또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는 노력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의지만으로도,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정의 다리

2005년 4월에는 정부 지도자, 교육 공무원 및 개인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약 5만 명의 교회 회원들과 지인들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200개 학교의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힘을 모았다. 자원 봉사자들은 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보수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학교에서 봉사했다.

그와 같은 봉사 활동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결속시켜준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지역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함께 우정을 쌓는다. 봉사하는 동안 맺어진 우호 관계는 이해를 돈독히 하고 관리들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몰몬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는 전도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칫 놓칠 수도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6년 9월에 영국 브리스톨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장을 개량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단 하루 만에 회원들은 휠체어 진입로에서 일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땅을 파고, 청소를 하고, 교육용 장난감을 만들고, 새집과 농장의 가축 우리를 만들 수 있었다. 2,500 시간이 넘는 봉사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지역 시장은 농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 참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몰몬 도움의 손길 조직을 통해 봉사하고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며 우정을 쌓아 왔다. 봉사 프로젝트는 삶에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자들의 신앙도 키워 주었으며, 지역 사회와 조직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 ■

세부 성도들을 방문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세부의 다섯 개 스테이크에 있는 후기 성도들은 2008년 8월 필리핀을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그의 아내 수잔 베드나 자매의 방문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베드나 장로 내외는 2008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부에서 열린 여러 모임에서 성도들 및 선교사들을 만나 말씀했다. 또한 베드나 장로는 필리핀 세부 중앙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청년 독신 성인

복합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모임에서 베드나 장로는 의미 있는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노력과 헌신과 인내를 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의로운 행동을 불러

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드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계시는 실재하며, 침례와 확인을 받고 성신을 받은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묘사되는 성신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 또한 점점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인

베드나 장로는 세부 중앙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성전에 대해 회원들에게 가르쳤다. “여러분에게 좀 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필리핀 세부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윌리엄 린다 핀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성전이 곧 생길 것입니다.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게 될 축복을 고대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시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 성전에 참석하십시오.”

베드나 장로는 사탄이 가족을 파괴하고 회원들의 성전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드나 장로는 “성전을 본보기로 삼아 여러분의 가정을 학문의 집, 기도의 집, 질서의 집으로 만드십시오.”(교리와 성약 109: 8 참조)라고 권고했다.

가정은 배움의 장소, 즉 영의 도움으로 영감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곳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이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베드나 장로는 “우리 가정은 성전을 본보기로 삼을 때 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특별 모임에서 베드나 장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 선교 사업을 올바르게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복음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복음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화시키며, 계명에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이해할 때, 여러분은 순결의 법과 기타 계명들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선택할 때, 우리는 실로 우리가 누구

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과 딸임을 이해하게 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베드나 장로는 영적 모임을 마무리하

면서 함께 한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의 영적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깊이와 열의와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터넷을 통해 확대되는 배부 서비스

전 세계에 배부 센터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그림, 성전복, 경전, 기타 필수적인 교회 자료 및 배부 물품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배부 센터에 직접 가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소모도 클 수 있다.

교회 배부 서비스 부서의 제품 개발 책임자인 짐 크리스틴슨 형제는 “교회 회원 중에는 아직도 [배부 센터까지]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부 센터로 가지 않아도 손끝 하나로 문 앞까지 바로 배송되는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LDSCatalog.com

언어, 통화 및 지역적인 문제들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배부 서비스는 교회 회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의 특정 지역에 기여하도록 국가별 배부 웹 사이트가 제작되었다.

그러한 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지역 사이트와 호주 지역 사이트 및 미국과 캐나다 회원들을 위한 사이트가 포함된다. 독일이 주축이 되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위해 고안된 웹 사이트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 밖의 지역 사이트들은 추후에 개발될 예정이다.



LDSCatalog.com 전 세계의 회원들이 교회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회원들은 LDSCatalog.com가서 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Country Sites**를 클릭함으로써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배부 센터에서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웹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여 미국과 캐나다 내 주소지로 보내지는 물품들은 무료 배송된다. 국가별 배부 사이트를 통해 주문된 자료들도 가능한 경우 지역 배부 센터에서 발송하게 하여 추가적인 운송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이트는 종종 구매자들에게 배부 센터보다 더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다. 배부 서비스의 프리젠테이션 책임자인 스티브 아가일 형제는 “사이트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많은 경우, 지역 배부 센터는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의류에서 교과 과정까지

웹 사이트는 구매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들이 찾고 있는 것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

웹 사이트에는 “새로운 품목”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새로이 헌납된 성전의 사진이나 교회 잡지의 최신호, 기타 새로운 제품 등 최신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과정 항목은 현재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된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복음 공부 자료, 공과 교재, 출판물 목록 및 기타 자료들은 가정, 와드 및 지부에서 이용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각 교회 단위 조직은 웹 사이트를 통해 시각이나 청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회원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특수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그 해 모든 보조 조직의 교과 과정 공과 자료 또한 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다.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족 역사 센터를 위한 물품, 인구 조사 정보, 시작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자료가 포함된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도 배부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회 자료 출판물 목록에 있는 미술 작품을 인쇄하려는 경우, 웹 사이트 방문자들은 전 세계 회원들의 인쇄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제목별 또는 작가별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을 찾음

아가일 형제는 배부 서비스가 전화, 팩스 및 우편 주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이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한다. 웹 사이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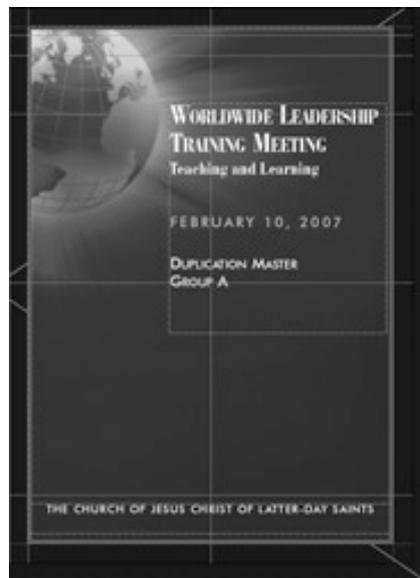
“웹 사이트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교회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라고 아가일 형제는 말했다. ■

훈련 모임,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해져

제 일회화단은 2007년에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은 지도자들이 이전의 방송을 복습하고 각 단위 조직의 필요 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자료로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06년, 2007년 및 2008년의 방송 내용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언어로 접할 수 있다. 이 모임들은 교회 위성 시스템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2006년 이전의 모임들은 소책자 형태로 배부되었다.

*의로운 후세를 키움*이라는 제목의 2008년 훈련 모임은 12개 언어의 경우 텍스트나 음성 또는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으며, 61개의 언어는 음성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방송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의 메시지와 더불어 원탁 토론자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홀랜드 장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 당시 본부 청년회장이었던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초동회 회장인 쉐릴 시 렌트 자매와의 토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6년, 2007년 및 2008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여러 언어로 접할 수 있다.

2008년 2월 9일에 방송되었다.

*가르치고 배움*이라는 제목의 2007년 훈련 모임은 22개 언어 텍스트로 제공되며, 그 중 10개 언어는 음성으로, 그리고 미국 수화, 영어, 스페인어의 경우 동영상으로도 접할 수 있다. 이 훈련 모임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및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모임은 2007년 2월 10일에 열렸다.

가족을 지원함이라는 제목의 2006년 훈련 모임은 38개 언어 텍스트로 제공되며 그 중 10개 언어는 음성으로, 그리고 미국 수화, 영어, 스페인어의 경우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이 방송의 연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당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보니 디 파킨 자매이다.

LDS.org의 온라인 자료에 접속하려면 **Gospel Library**로 가서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을 클릭한다. ■

12월 2일에 최초로 헌납되었다.

멕시코시티의 교회 역사는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리검 영 회장은 다니엘 존스를 작은 무리의 선교사들과 함께 멕시코시티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몇 멕시코인 지도자들에게 교회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이 책자 중 하나가 후에 멕시코의 첫 번째 교회 회원이 된 플로티노 로다카나티의 손에 들어갔다. 1879년 11월, 멕시코시티의 첫 번째 교회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로다카나티 형제가 지부 회장이 되었다.

현재 멕시코에는 전국적으로 212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그 회원 수는 약 112만 명에 달한다. ■

성 전 소 식

멕시코시티 성전의 재헌납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8년 11월 16일 19개월간의 보수 공사를 마친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을 재헌납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도 재헌납식에 참석했다.

25년간 계속해서 기능을 수행해온 이 성전은 2007년 3월 31일에 개보수를 위해 문을 닫았었다. 성전은 2008년 10월에 일반 공개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안내자를 동반하여 관람할 수 있었다. 그 후, 이 지역의 후기 성도들은 두 번의 헌납 모임에 참석했다.

이 성전은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게레로, 과나화토, 모렐로스, 바하 칼리포르니아 서, 미초아칸, 이달고, 푸에블라, 케레타로 및 산루이스포토시 주에 살고 있는 약 264,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이용하게 된다.

멕시코시티 성전은 멕시코에 세워진 12개의 성전 중 첫 번째 성전으로 1987년

하와이 라이에 성전, 보수를 위해 문을 닫아

기존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오늘날의 성전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하와이 라이에 성전이 2008년 12월 29일에 문을 닫았다. 보수 기간은 대략 18개월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공사가 끝나면 성전은 재헌납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하와이 라이에 성전 지역의 회원들은 하와이 코나 성전을 방문하게 된다. 하와이 라이에 성전은 1919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하와이 라이에 성전

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에 의해 처음 헌납되었으며 1978년에 보수 및 확장 후 재헌납되었다. ■

런던 성전, 50주년 경축 행사 열려

2008년 9월 7일 일요일, 5백 명 이상의 회원들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3)에 의해 헌납된 영국 런던 성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영적 모임에 참석했다.

지역 칠십인인 패트릭 키런 장로가 감리한 이 모임에는 7명의 전임 성전 회장이 참석했다.

현 성전 사무장이자 영국 크롤리 스테이크 회장단의 제2보좌인 그라함 던 형

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인용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써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교리와 성약 128:9)

현 성전 회장인 마이클 패그 회장은 성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전은 진실로 주님의 집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권유하십니다.”라고 말했다.

노년의 모임에는 가족 역사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테비웃 경 내외와 함



영국 런던 성전

계 웨스트 서식스 및 이스트 서식스 군 위원회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테비웃 부인은 가족 역사 연맹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집회소 입구에는 성전 건축 및 헌납에 관한 기록 사진을 보여주는 특별 전시가 마련되었으며 이 사진들은 순서지에 인쇄되어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

간추린 세계 소식

교회 박물관의 명칭 변경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을 포함한 기타 교회 기구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이 이제 교회 역사 박물관으로 불리게 된다. 박물관은 영구적인 전시실뿐 아니라 특별한 주제에 관한 단기 전시를 통해서도 물문의 경험을 소개한다. 안내자를 동반한 관람 및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며 입장은 무료이다.

영국 계보학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강연

영국의 유명한 계보학자인 콜린 알 채프만이 2008년 10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당신

의 조상은 정말로 결혼했는가?” 및 “1086년에서 1841년까지의 초기 영국 인구 조사에 나오는 계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채프만은 영국의 여섯 개 군의 계보 협회 설립을 도왔으며, 가족 역사에 관한 14권의 책의 저자이다. 그는 가족 역사 사업의 국제 표준이 된, 세 글자의 채프만 카운티 코드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온라인을 통한 가족 역사 상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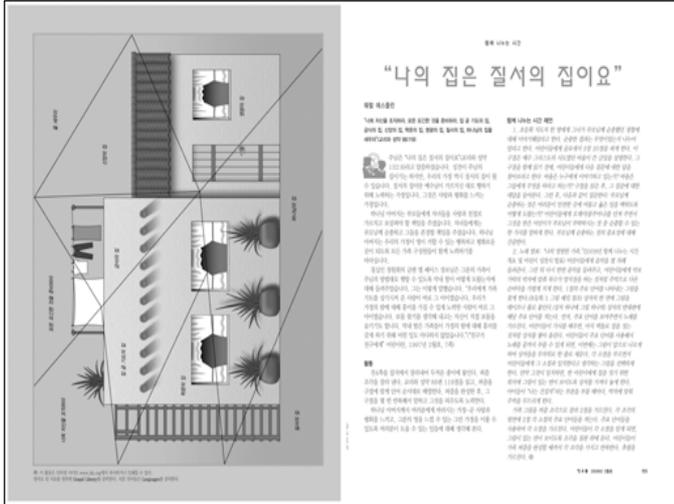
가족 역사부는 가족 역사 상담자를 돕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도구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는 최신 훈련과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 및 제작물이 있다. 등록된 참가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된 내용 및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이메일로 발송된다. 상담자들은 단위 조직 번호와 교회 회원 번호로

<http://consultant.familysearch.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전시 중인 하와이어 물문경

물문경 하와이어 번역본인 Ka Buke a Moramona의 1855년판 원본이 2008년 11월에 하와이 라이에 성전 방문자 센터에 전시되었다. 1855년 판은 3천 권만이 인쇄되었으며, 그 중에서 2백 권 정도만이 제본되었다. 인쇄 몇 년 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오늘날에는 이 희귀판 중 15~30권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



2009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9년 3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부합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4쪽과 5쪽에 있는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를 참조한다.

1. 아버지의 여러 가지 책임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여준다. (가정의 밤 시간에 자녀들을 가르침, 교회에서 봉사함, 가족을 부양함, 가족과 함께 오락 시간을 가짐, 가정을 개선시키는 일에 참여함 등) 아버지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각 그림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보게 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의 7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책임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주님 가족 주셨네”(리아호나, 2008년 10월호, 친12~1쪽)의 2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리하이의 영향력

참여하게 한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간증한다.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쪽지를 적게 하고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도록 권유한다.

2. 나이가 많은 어린이 몇 명에게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노래 또는 찬송가를 부를 준비를 미리 하고 오게 한다. 어머니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반주자는 반주를 잠시 멈추고, 그동안 노래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의 귀에 대고 “어머니”라고 속삭이게 한다. 노래가 끝날 때 그 어린이들이 다시 자기 양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머니란 말을 속삭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 주제가 무엇인지 알면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일곱 번째 단락에 있는 어머니의 책임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양육이란 “자라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고 가르친다. 종이 몇 장에 어머니가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미리 적어 통에 담아 둔다. (예: 귀 기울여 들음, 식사를 준비함, 야기를 달래, 안아줌,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줌 등) 어린이들에게 차례로 종이 한 장씩을 집어 말없이 행동으로 설명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알아맞히게 한다.

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니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할극을 하게 한다. (니파이전서 1~2장 참조) 기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들이 붙일 이름표를 미리 만든다.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가족 주셨네”(리아호나, 2008년 10월호, 친12~1쪽)의 3절을 노래한다.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간증한다.

3. 다음의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사촌”이라는 이름표를 만든다. 나이든 어린이 한 명을 골라 등에 이름표 하나를 달게 한다. 그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이름표를 보여준다. 그 어린이에게 이름표가 가족 중 한 명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가 달고 있는 이름표를 알아맞힐 단서를 주게 한다. (예: 나는 너의 할머니 집에 살아. 또는, 나는 너의 할머니의 아들이야. 또는, 나는 너의 어머니의 오빠야.) 각 이름표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및 사촌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이며, 이들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돕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분 들임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확대 가족의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도왔던 때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명의 확대 가족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자루 인형을 만들게 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79쪽 “인형” 참조)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사용하면서 가족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인형을 보여주며 그들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인형을 집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가족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을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도구로 삼게 한다. ■